

#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성서 해석 모델 —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

임성욱\*

## 1. 들어가는 말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을 상술하기에 앞서 대한성서공회에서 지금까지 발간해 온 해설 성경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발간사에서 상세하게 밝히듯이 대한성서공회는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을 발간하기 전까지 두 종류의 해설 성경을 출간해 왔다. 첫 번째 해설 성경은 『해설·관주 성경전서 독일성서공회판』으로서 1997년에 출판되었다. 이 해설 성경은 사실 독일성서공회가 출판한 <슈투트가르트 해설 성경>의 독일판 해설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개역한글』 본문에 맞추어 대한성서공회가 출판한 것이다. 후일 1998년 『개역한글』을 대신하여 『개역개정』이 발간됨에 따라 『관주·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이 출판되기에 이른다. 두 번째 해설 성경은 2000년에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개역개정판』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개역개정판』은 미국성서공회가 출판한 영문판 해설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개역개정』 본문에 추가하였다.

이렇듯 대한성서공회는 독일성서공회와 미국성서공회에서 출판되어 온 서구 해설 성경의 전통을 전문적인 성경 지식에 목말라 있는 국내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해 온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세계 각국의 성서공회는, 특히

\* Vanderbilt University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신약학 교수. [sunguk.lim@yonsei.ac.kr](mailto:sunguk.lim@yonsei.ac.kr).

서구의 성서공회는 21세기 전후를 기점으로, 그 주요 책무였던 성서 번역 및 개정과 성서 보급을 넘어서서 성서가 일반인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자료들을 배출하는 데 역점을 두기 시작한다.<sup>1)</sup> 대한성서공회도 이런 세계 추세에 발맞추어 성서가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래서 서구의 성서공회에서 출판된 해설 성경 중 가장 권위 있는 독일성서공회와 미국성서공회의 해설 성경을 번역하여 국내에 소개해 왔다. 특히나 이 사업을 위해 국내 성서학을 대표하는 각 교단의 연구진들이 대거 번역 작업에 참여해 온 것이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2021년 대한성서공회는 세 번째 해설 성서본인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을 출판하기에 이르렀다. 취리히 개혁교회는 2007년 <취리히성경>(Züricher Bibel) 최신개정판을 내놓게 된다. 기실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은 16세기 초(1524-1531)에 출판된 스위스 독일어 성서 번역본으로서 동시대에 출판된 또 다른 독일어 성서 번역본인 <루터성경>(Luther Bibel, 1522-1534)과 함께 개혁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으로서 지난 500여 년간 서구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취리히 개혁교회는 <취리히성경>(Züricher Bibel) 최신개정판을 출판하면서 4개의 부록을 함께 발간하기에 이른다. 4개의 부록은 <둘러보기 - 취리히 성서 가이드>(초판 2007, 제2판 2009), <깊이 들어가기 - 취리히 성서 세미나>(2007), <뜻풀이 - 취리히 성서 해설>(초판 2010, 제2-3권; 제2판 2011) 그리고 <함께 듣기 - 원음 취리히 성서>(2007)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성서공회가 금번에 출판한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은 세 번째 부록인 <뜻풀이 - 취리히 성서 해설>을 한국적 정황에 맞추어 약간의 축약 과정을 거쳐 편역된 것이다.<sup>2)</sup>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은 2000년대 초반까지 서구 현대 성서학이 걸어온 발자취가 오롯이 반영된 해설 성서로서 수준 높은 성서에 대한 이해를 담아내고 있다. 이는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발간사에서 밝히듯 성서의 저변 확대를 위해 기획된 해설 성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3)</sup>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이하 『취리히해설』로 축약함)의 발간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대한성서공회에서 기존에 출간해 온 『관주·

1) 박동현, 이상원, “서평: Erklärt. Der Kommentar zur Zürcher Bibel”, 「성경원문연구」 40 (2017), 265.

2) Ibid., 265-267.

3) 참조, 최영숙,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특징점과 평가 - 서신서 중심”, 「성경원문연구」 49 (2021), 245-247.

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이하 『독일성서공회판해설』로 축약함)과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개역개정판』(이하 『굿뉴스』로 축약함)을 『취리히해설』과 비교해 보는 것은 의의가 깊을 것이다. 물론 서로 다른 해설 성서 가운데 여러 가지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이 논문에서는 무엇보다도 성서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는 성서 해설 모델을 분석할 것이다. 김창락이 주장하듯이, 『독일성서공회판해설』과 『굿뉴스』는 공히 모두 명백하게 역사비평적 방법론에 입각해서 성서의 의미를 탐구한다.<sup>4)</sup> 이에 반해 『취리히해설』은 역사비평적 방법론 이외에도 문학비평적 방법론을 채택하여 성서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새롭게 도출해 내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역사비평적 방법론은 성서라는 텍스트 배후에 존재하는 삶의 정황(Sitz-im-Leben)에서 그 의미를 추구한다면, 문학비평적 방법론은 텍스트 안에 내재하는 의미를 추구한다. 이렇듯 성서학 연구에 있어서 여러 갈래 길을 염두하고 비교하자면, 『독일성서공회판해설』과 『굿뉴스』는 역사적 정황 가운데 성서의 의미를, 『취리히해설』은 역사적 그리고 문학적 맥락 가운데 성서의 의미를 보다 입체적으로 탐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성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성서학자들뿐만 아니라, 성서에 관심 있는 일반 그리스도인들과 일반 독자들이 성서의 의미를 역사를 넘어서서 보다 다채롭게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가 해설 성경에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그렇다면 역사비평 방법론과 문학비평 방법론을 동시에 채택해서 성서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주해해서 추구한다면 성서의 해석은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롭게 발간한 『취리히해설』에 내재된 성서 해석 모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작업을 『취리히해설』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그 연구 범위를 요한복음의 해설에만 한정해서 진행할 것이다. 『취리히해설』의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서 해석 모델을 진지하게 탐구하기에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스위스 독일어 원판인 <뜻풀이 - 취리히 성서해설>(이하 <뜻풀이>로 축약함)과 그 한글어 번역본인 『취리히해설』의 구성 체계를 상세히 비교하고자 한다. <뜻풀이>와 『취리히해설』의 구성을 자세히 비교함으로써, <뜻풀이>에 비해 그 구성에 있어, 더욱 단순화된 『취리히해설』의 특성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취리히해설』은 <뜻풀이>에 나오는 다소 지나치게 전문적인 신학적인 내용과 스위스 개혁신학회의 신학적 입장을 배제함으로써 신학 전문 독자층과 일반 독자층을 모두 폭넓게

4) 김창락, “『관주·해설 성경전서』와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성경원문연구』 9 (2001), 57.

고려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취리히해설』의 성서 해석의 모델이 갖는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취리히해설』의 성서 해석의 모델을 상술하기에 앞서, 『독일성서공회판해설』과 『굿뉴스』의 성서 해석 모델을 비교·분석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독일성서공회판해설』은 역사비평 방법론과 신학적 주석을 주로 강조함으로써 신학 전문 독자층을 겨냥했다면, 『굿뉴스』는 역사비평 방법론을 차용하면서도 전문적인 신학적 주석에 크게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보다 일반적인 독자층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에 반해, 『취리히해설』은 요한복음의 경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역사비평 방법론, 문학비평 방법론 그리고 신학적 주석을 종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신학 전문 독자층과 일반 독자층의 요구를 모두 아우르는 성서 해석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해설 성서의 구성 체계와 성서 해석 모델에 있어, 『취리히해설』은 보다 포괄적인 독자층을 겨냥해서 기획·출간되었다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 다시 말해서, 『취리히해설』은 그 원본인 <뜻풀이>보다도 그 구성 체계에 있어서, 그리고 또한 대한성서공회가 기존에 발간했던 『독일성서공회판해설』과 『굿뉴스』의 성서 해석 모델에 있어서도, 목회자와 신학생으로 이루어진 신학 전문 독자층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와 기독교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층을 모두 골고루 염두에 두고 출판 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그 다음으로 『취리히해설』의 성서 해석 모델이 어떻게 본문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특별히 수난 이야기 중에서도 법정 장면(요 18:28-19:16상반)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결론에 이르러서는, 본 논문은 머지않은 미래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로운 해설 성경을 기획할 때를 대비해서 차기에는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더 요청되는지를 탐색할 것이다.

## 2. 『취리히해설』의 구성 체계

스위스 독일어 원본인 <뜻풀이>와 한국어 번역본인 『취리히해설』 사이에는 구조상 차이점을 지닌다. 서두에서 약술하였듯이, 『취리히해설』은 <뜻풀이>의 편역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 먼저 <뜻풀이>의 구조를 간략히 소개한 이후에, 다음으로 『취리히해설』의 구조를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하자. 이 과정을 통해서 『취리히해설』의 구성 체계를 보다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뜻풀이>보다 다소 단순한 『취리

히해설』의 구성 체계를 확인함으로써, 대한성서공회가 <뜻풀이>를 편역하면서 그 독자층의 외연을 보다 확대한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뜻풀이>의 대략적인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자.<sup>5)</sup> 성서 각 책에 포함된 해설의 구조는 간단하다. (1) 성서 각 책의 해설 처음 페이지에서는 책에 관련한 서적 관련 기본 사항이 적혀 있다. 신약의 경우에는 책 이름(그리스어 성서, 불가타 성서, 취리히 성서), 저작 시기, 저작 장소, 지은 이, 문학 형식, 통일성, 정보의 가치, 주요 단어, 신학, 활용, 및 영향사를 간단하게 도표로 정리해서 보여준다. (2) 이러한 서적 관련 기본 사항을 서술한 직후, 신약의 경우에는 고동색 배경색에 흰색으로 된 글씨로 그 책과 관련한 문학적 그리고 신학적 기본 사항을 문장식 서술 형식으로 전달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점은, 도표식 기본 사항에서는 주로 역사적 맥락 내에서 책의 기본 사항을 전달하는 반면에, 서술식 기본 사항은 역사적 맥락보다는 문학적 그리고 신학적 맥락 내에서 책의 기본 사항을 전달한다. (3) 책의 기본 사항을 도표 형식과 서술 형식으로 전달한 이후에는 책 본문의 뜻풀이가 다채롭게 서술된다. 책 본문의 뜻풀이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성서 본문, 성서 해설, 그리고 참고 자료가 책 본문 뜻풀이 전체를 구성한다. 홀수 쪽의 경우에는, 참고 자료(왼쪽)-성서 본문-성서 해설의 형식으로, 짝수 쪽의 경우에는 성서 본문-성서 해설-참고 자료(오른쪽)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성서 본문은 <취리히성경> 2007년 최신개정판이 사용된다. 성서 해설은 성서 본문의 길이에 거의 상응하는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고 자료는 왼쪽의 내용과 오른쪽의 내용이 서로 다르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왼쪽의 참고 자료는 “초점”(spot)이라 명명되는데, “초점”은 “관련본문”(Stellen), “용어 해설”(Essay), “영향”(Wirkung)과 같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관련본문”은 본문 중 유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다른 성서 본문을 가르쳐준다. “용어 해설”은 『취리히성경』 2007년 최신개정판의 “용어 해설집”에 수록된 내용으로서 용어에 대한 직접적인 해설이 바로 나올 경우도 있고, 직접적인 해설이 없을 경우에는 그 용어에 대한 직접적인 해설이 나오는 성서 본문이 표시되어 있다. “영향”은 제시된 주제에 관한 개혁신학회의 이해를 소개한다. 주제에 관련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제시되거나, 그 주제와 관련한 다른 본문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오른쪽의 참고 자료는 “귀띔”(tip)으로 명명되는데, “더 읽을거리”(Lektüre)와 “매체”(Mittel)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더 읽을거리”는 주어진 책을 더 상세

5) 상세한 내용은 박동현, 이상원, “서평: Erklärt. Der Kommentar zur Zürcher Bibel”, 273-281을 참조하도록 하라.

하게 이해할 수 있는 참고 문헌을 제시한다. “매체”는 책과 관련된 내용이 수록된 다른 “부교재”(bibel[plus])의 위치를 명시한다. (4) 전체적으로 책 본문 뜻풀이가 끝나면 바로 뜻풀이를 한 작가, 즉 주석가(Kommentar)의 이름이 등장한다.

다음으로 『취리히해설』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자. 『취리히해설』은 <뜻풀이>의 축약본이기에 그 구조 역시 유사하지만 다소 단순하다. (1) 성서 각 책의 해설 첫 페이지에서는 <뜻풀이>와 마찬가지로, 책 이름(그리스어 성서, 불가타 성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저작 시기, 저작 장소, 지은이, 문학 형식, 통일성, 정보의 가치, 주요 단어, 신학, 활용 및 영향사와 같은 내용을 도표로 정리해서 소개한다. (2) 책과 관련된 기본 사항 또한 <뜻풀이>와 동일하게 문학적 그리고 신학적 맥락에서 문장식 서술 형식으로 표현된다. (3) 책 본문의 뜻풀이는 <뜻풀이>보다는 훨씬 단순하게 성서 본문과 성서 해설로 구성되어 있다. <뜻풀이> 왼쪽과 오른쪽 바깥쪽에 표기되었던 참고 자료는 『취리히해설』에서는 완전히 사라지고 없다. 그리고 특이 사항은, <뜻풀이>에서 성서 본문이 왼편에 성서 해설이 그 오른편에 병렬 표기된 것과는 달리, 『취리히해설』에서는 성서 본문 한 단락이 끝나면 바로 성서 해설이 나오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서 본문과 성서 해설이 혼재된 방식으로 한 페이지가 두 단을 양분하여 구성된다. 『취리히해설』은 <뜻풀이>와 달리 뜻풀이를 작성한 주석가의 이름을 무명으로 처리한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취리히해설』은 <뜻풀이>의 편역본으로서 성서 해설의 기본 사항을 도표 형식과 서술 형식으로 표현하고 본문 뜻풀이는 오로지 성서 본문과 성서 해설로 단순화시켜 독자에게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한다. 이와 같은 『취리히해설』의 구조 형태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뜻풀이>에 자세하고 정확하게 표기된 참고 자료의 내용과 주석가의 이름을 완전히 삭제했다는 점일 것이다. 따라서 『취리히해설』에서 <뜻풀이>의 참고 내용과 주석가의 정보를 삭제함으로써 일반 독자들에게 지나치게 전문적인 신학에 대한 내용과 스위스 개혁교회의 해석 전통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자제했다는 점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성서 해석의 전문 내용과 스위스 개혁교회의 신학적 전통을 생략함으로써, 『취리히해설』을 출간한 대한성서공회는 독자층을 성서 전문가 집단, 즉 목회자와 신학생을 당연히 포함하면서도 보다 일반적인 독자층, 즉 평신도와 일반인들을 포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취리히해설』은 신학적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특정한 교단의 신학 사상을 자제함으로써, 보다 일반적인 독자층을 고려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3. 『취리히해설』의 성서 해석 모델

『취리히해설』의 요한복음에 나타난 해석 모델을 진지하게 탐구하기에 앞서 『독일성서공회판해설』과 『굿뉴스』의 일반적인 특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할 것이다. 이를 통해 『취리히해설』의 해석 모델의 의의를 보다 선명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결과, 본 논문을 읽는 독자들은 『취리히해설』의 성서 해석 모델이 갖는 특징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추후 대한성서공회에서 해설 성경을 새롭게 기획, 제작할 경우 앞으로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지를 건설적으로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독일성서공회판해설』과 『굿뉴스』 각각의 특징은 무엇일까? 먼저 『독일성서공회판해설』은 신학 일반과 성서신학에 소양을 갖춘 사람들, 즉 목회자 및 신학도를 위해서 집필된 해설 성서로 이해할 수 있다.<sup>6)</sup>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독일성서공회판해설』은 표면적으로는 역사적, 문학적, 신학적 해설을 모두 아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문학적 해석보다는 역사적 그리고 신학적 해석에 훨씬 큰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이다.<sup>7)</sup> 정리해서 말하자면, 『독일성서공회판해설』은 역사비평 방법론과 신학적 주석을 강조하는 독일 성서학의 오래된 전통 아래서 신학에 어느 정도 소양이 있는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을 위해 체계적으로 기획된 해설 성서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굿뉴스』는 신학적 소양을 갖춘 전문가보다는 일반 평신도를 위하여 매우 용이하게 풀이된 해설 성서라고 이해하면 된다.<sup>8)</sup> 『굿뉴스』는 『독일성서공회판해설』에 견주어 볼 때 보다 더 대중적인 해설 성서로서 신학적 전문지식이 별로 없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일반인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해설 성서인 것이다. 『굿뉴스』는 역사적 해설을 주로 담아내기에 신학적 주석은 상대적으로 약하다.<sup>9)</sup> 성경을 해석하는 접근 방법적인 면에서 평가해 보자면, 『독일성서공회판해설』은 역사비평 방법론과 신학적 주석을 강조하는 반면에, 『굿뉴스』는 역사비평 방법론을 차용하면서도 신학적 주석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독일성서공회판해설』

6) 김영봉, “우리의 상황에서 나온 해설 성서가 필요하다: 스테디 바이블을 사용하고 있는 독자의 입장에서”, 『성경원문연구』 9 (2001), 71.

7) Ibid., 70. 참조, 차준희,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과 『관주-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비교 - 예레미야서 해설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9 (2021), 214-240.

8) 김영봉, “우리의 상황에서 나온 해설 성서가 필요하다: 스테디 바이블을 사용하고 있는 독자의 입장에서”, 73.

9) Ibid., 72.

에 비해 『굿뉴스』는 신학적 지식 기반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이나 일반인들에게 보다 접근 가능한 성서 해설로 자연스레 자리를 잡게 된다.

그렇다면 역사비평 방법론, 문학비평 방법론 그리고 신학적 주석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면서 성서의 전체적인 의미를 탐구하는 성도 및 일반인들과 성서의 깊이 있는 의미를 추구하는 목회자들과 신학생도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해설 성서는 과연 불가능한 것일까? 대한성서공회는 스위스 개혁교회의 <뜻풀이>의 편역본인 『취리히해설』을 출간함으로써 그러한 종합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취리히해설』의 성서 해석 모델을 요한복음을 예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취리히해설』이 본래 예상했던 소기의 목적과 그 효과를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리히해설』의 성서 해석 모델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을 소개하기 위해 제시된 도표식 기본 사항과 서술식 기본 사항을 각각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자. 도표식 기본 사항은 다음과 같이 소개된다.

책 이름	그리스어 신약성서: 요한에 따른 (복음) 라틴어 불가타 성서: 요한에 따른 복음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요한복음
쓴 때	기원후 90년대에 쓴 듯함.
생겨난 곳	에페수스(에베소).
쓴 사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유대인, 유대계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열린 자세를 가진 사람.
문학 형식	논쟁적 대화, 기적 이야기, 수난 이야기, 고별 연설.
통일성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냄.
정보의 가치	유대교의 의례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줌, 하지만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대교에 대한 서술은 아님.
중심 낱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빛, 생명, 사랑, 믿음.
신학	하나님의 사랑의 신학.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및 그리스도 이해(기독론)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
활용	요한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들에서 읽힘(요한 1-3서 참고). 그 밖의 무수한 사람들에게도 읽힘.
영향	신학, 철학, 예술, 문학에서 여러 모습과 방식으로 받아들였음. <sup>10)</sup>

10)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서울: 대한성서공회, 2021), 191.



『취리히해설』의 도표식 기본 사항을 분석해 보면 크게 역사적, 문학적, 신학적, 문화적 맥락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취리히해설』은 역사적 맥락에서 요한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책 이름, 쓴 때, 생겨난 곳, 정보의 가치 등과 같은 정보는 모두 역사적인 내용이라 하겠다. 둘째, 『취리히해설』은 요한복음의 문학적 특징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한다. 문학 형식과 통일성과 같은 내용이 문학적 내용에 해당한다. 셋째, 『취리히해설』은 요한복음의 신학적 사상의 주요 내용을 전달한다. 신학과 활용에서 요한복음의 신학적 주제와 특징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넷째, 『취리히해설』은 역사적, 문학적, 신학적 특징 이외에도 요한복음이 어떻게 문화적으로 수용되어왔는가를 밝혀주고 있다. 정리하자면, 『취리히해설』은 도표식 기본 사항에서 요한복음을 역사적, 문학적, 신학적, 그리고 문화적 맥락에서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으로 개괄하고 있는 것이다.

도표식 기본 내용을 소개한 직후, 『취리히해설』은 요한복음에 대한 서술식 기본 사항을 전달한다. 『취리히해설』의 서술식 기본 사항은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진다. 첫째, 『취리히해설』은 눈에 확 드러나게 처음부터 요한복음의 문학적 특징을 강조한다.

성경에서 <요한복음>만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책은 거의 없다.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정교한 솜씨 때문에, 요한은 ‘묵상을 통해 꿰뚫어보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이해되기도 했다(로마노 과르디니). 머리말(1:1-18)에서는 <요한복음>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알려 주는데, 거기서 이미 복음서의 핵심 주제들을 밝히고 있다.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 가는 가운데, 사람들은 여러 방식으로 소개되는 이야기들을 통해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야기들 안에서는 풀이, 자세한 설명을 통해 풀여지는 오해, 아이러니, 상징 언어와 같은 문학적 장치가 사용된다.<sup>11)</sup>

두말할 나위 없이, 모든 서문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그 작가의 중심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취리히해설』의 서술식 기본 사항에서 문학적 맥락이 처음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머리말에서부터 『취리히해설』은 문학적 접근이 이 해설 성서의 가장 주요한 접근

---

11) Ibid.

방식임을 가르쳐 준다. 이는 『취리히해설』이 성서 해설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초가 역사적 비평보다도, 문학적 비평에 입각한 해설서임을 쉽게 짐작할 수 요소이다. 다시 말해서, 『취리히해설』은 요한복음을 하나의 잘 구성된 이야기로 바라본다. 『취리히해설』은 요한복음에서 문학적 요소인 상징(Symbolsprache), 역설(Ironie), 오해(Missverständnisse)와 같은 문학적 장치가 주요하게 사용됨을 주목한다. 『취리히해설』은 요한복음이 이처럼 정교한 문학적 기교 가운데서 그 심오한 신학적 사상을 전개함을 강조한다.

둘째, 『취리히해설』은 요한복음의 신학적 특징을 설명한다.

이런 틀 안에서 요한은 가장 정교하게 가다듬은 그리스도 이해(기독론)를 단계적으로 펼쳐 나간다. 맺음말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20:30-31). 그것에 맞추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이미 책의 첫머리에서 드러내어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방향을 미리 알려준다. 말씀(로고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특별히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언급은, 예수님이 나중에 하신 말씀에 들어맞는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본질이 같고(10:30),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였다(17:24)고 주장하신다.<sup>12)</sup>

『취리히해설』은 신학적인 주제 의식을 갖고 요한복음을 해제하려 한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 중에서도 『취리히해설』은 요한복음의 특히 기독론(Christologie), 즉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 주목한다. 기독론과 관련해서 예수의 메시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 정체성에 주목한다. 그와 동시에 『취리히해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영생(ewiges Leben)을 가져옴을 강조한다. 그 외에도 『취리히해설』은 말씀(Logos)으로서의 예수의 정체성과 성자 예수와 성부 하나님의 관계에 주목한다. 『취리히해설』의 서술식 기본 사항에서 요한복음의 문학적인 특징과 신학적인 특징을 처음부터 강조하지만, 요한복음의 역사적인 특징을 절대 도외시하지는 않는다.

셋째, 『취리히해설』은 요한복음의 역사적 특징을 공관복음과 관련해서 그리고 요한공동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정리한다.

---

12) Ibid.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그리스도 이해에 따라서 때때로 요한은 전해 내려오던 공관복음(<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내용을 주저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꾸기도 한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첫 번째 긴 말씀에서, 아버지는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아들을 죽음에 넘겨주셨다고 강조하신다(3:16-17). <마가복음>에서와는 달리(막 14:36),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거절하신다(요 12:27; 18:11). 십자가에서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탄식하시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일을 이제 다 이루었다고 강조하신다(19:30). 나아가 <요한복음>에서는, 부활 이전과 이후의 시대가 시간 순으로 차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뒤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고별 연설(13-17장)과 제자들의 분열(6:60-71)과 회당에서 쫓겨날 것을 예고하는 말씀(9:22; 12:42-43; 16:1-4상)이 그렇다. 이 세상에서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 안에는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도 동시에 나타나 있다. 그분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의 모습에도 부활 이후의 교회 상황이 반영되어 나타난다.<sup>13)</sup>

『취리히해설』은 요한복음의 역사적 특징을 먼저 공관복음과 관련해서 설명한다. 신약성서학 내에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관계는 역사비평 방법론 내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주요 연구 주제이다. 이에 대해 『취리히해설』은 요한복음이 공관복음과 달리 요한의 예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를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설명한다. 더 나아가, 『취리히해설』은 요한의 예수는 공관복음과 다르게 자신의 죽음에 초연하게 대처한다고 강조한다. 다음으로 『취리히해설』은 요한복음의 역사적 특징을, 비록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한공동체와 관련해서 설명한다. 예를 들면, 『취리히해설』은 요한복음에서 기술상(記述狀) 드러난 연대기적 모순에 주목한다. 『취리히해설』은 요한복음이 부활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부활 이전에 언급한다든지, 부활 이후의 예수의 모습이나 제자들의 상황이 부활 이전의 예수의 모습이나 제자들의 상황 속에 투영되어 나타남을 예리하게 지적한다. 『취리히해설』은 이와 같은 역사적인 오류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이는 예수의 부활 이후 형성된 요한공동체의 정황이 요한복음의 편집되는 과정 가운데 투사된 사실을 가정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

13) Ibid., 191-192.

구하고, 『취리히해설』은 요한복음과 요한공동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규명하지는 않는다. 추정컨대, 요한복음을 역사적으로 현란하게 재구성할 경우에 독자에게 야기될 수도 있는 신앙과 신학의 잠재적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취리히해설』의 숨겨진 의도를 여기서 다 밝혀낼 수는 없지만, 『취리히해설』이 독자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절제해서 전달하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 『취리히해설』은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관계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공동체의 관계와 같은 역사적인 문제들을 꼭 필요한 만큼만 최소화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다.

넷째, 『취리히해설』은 은유의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형성화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문학적-신학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sup>14)</sup>

그러나 <요한복음>의 특별한 매력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그림을 보여주듯 설명하는 은유에서 발견된다. 역설적인 은유로 설명하자면, <요한복음>의 은유는 ‘어린이가 걸어서 건널 수도 있고 코끼리가 수영할 수도 있는 바다’와 비교될 수 있다(로버트 카이사). 이 책에 대한 지식을 미리 갖지 못한 사람들도 <요한복음>의 기본적인 핵심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주제들과 논증들이 보여주는 깊은 의미들은, 요한이 사용하는 표현방식의 배경을 깨달을 때에만 이해할 수 있다(8:12 풀이 참고). 이러한 의미에서, 여기서는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학’을 어떤 방식으로 펼쳐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한다. 이 사랑의 신학은 초대교회 신학의 역사에서 최고점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다(3:16; 17:24-26의 풀이 참고).<sup>15)</sup>

『취리히해설』은 문학적, 신학적, 역사적 맥락에서 각각 요한복음을 개별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때론 복합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기도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취리히해설』은 문학적 표현과 신학적 사상이 하나로 연계되어 시적으로 요한복음에 내재되어 있음을 잘 드러내준다. 『취리히해설』은 특별히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고차원적인 신학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은유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음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잠시 정리하자면, 『취리히해설』은 서술식 기본 사항에서 요한복음의 특징을 문학적, 신학적, 역사적, 문학적-신학적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하

14) 『취리히해설』은 문학적 접근 방법과 신학적 접근 방법을 개별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두 접근 방법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문학적-신학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15)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192.

고 있다. 『취리히해설』은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보여준다. 『취리히해설』은 문학비평 방법론, 역사비평 방법론 그리고 신학적 주석을 종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신학 전문 독자층과 일반 독자층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통합적인 성서 해석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에 일반인들이 대체적으로 이해하기에 난해한 역사적 맥락이나 신학적 맥락을 강조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선지식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문학적 맥락을 전면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해설 성경의 접근 가능성을 높였다. 문학적 맥락에 중점을 두면서도 동시에 『취리히해설』은 요한복음의 신학적 맥락과 역사적 맥락을 균형감 있게 설명함으로써 요한복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까지도 요구하는 고급 독자의 희망 사항 또한 결코 소홀히 다루지 않는다. 또한 문학적 맥락과 신학적 맥락을 연계함으로써 『취리히해설』은 요한복음에 선지식이 없는 독자들도 요한복음의 심오한 신학적 사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자면, 『취리히해설』은 기존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했던 『독일성서공회판해설』 및 『굿뉴스』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성서 해석 이론에 있어서 역사적, 문학적, 그리고 신학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성서를 개괄적으로 탐구하고자 하는 성도 및 일반인뿐만 아니라 성서에 대한 보다 깊은 의미를 추구하는 목회자와 신학생 모두 충족시키고자 한다. 『취리히해설』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도표식 기본 사항과 서술식 기본 사항에서 모두 역사적, 문학적, 그리고 신학적 접근 방식을 그 주요 성서학적 모델로 분명히 제시한다. 단, 『취리히해설』의 도표식 기본 사항에서는 역사적, 문학적, 신학적 맥락 이외에도 문화적 맥락까지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서술식 기본 사항에서는 다른 어떤 맥락보다도 문학적 맥락을 강조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취리히해설』은 기존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출간된 다른 해설 성경보다도 역사, 문학, 신학, 및 문화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성서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목회자와 신학생을 포함하는 고급 독자층의 전문적인 요구를 충족하는 동시에, 문학비평 방법론을 성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방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성서에 관심은 있으나 신학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아직은 탄탄하지 않을 수 있는 일반 독자들도 성서에 보다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취리히해설』의 성서 해설 모델은, 최소한 요한복음의 경우에 한해서는, 전문 독자층과 일반 독자층을 모두 배려하여, 문학비평 방법론을 중심으로 성서의 역사적, 문학적, 신학적 및 문화적 맥락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유기적 해석 모델인 것이다.

#### 4. 『취리히해설』 성서 해석 모델의 실례 — 요한복음 18:28-19:16 상반을 중심으로

『취리히해설』의 성서 해석 모델의 실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법정 장면<sup>16)</sup>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요한복음의 법정 장면에서 공관복음과는 사뭇 다르게 빌라도는 예수와 유대인을 교차로 오가며 예수의 사형을 선고하기에 이른다.<sup>17)</sup> 상술하자면, 요한복음의 법정 장면(18:28-19:16상반)은 예수의 판결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7개의 작은 대화 장면으로 나누어 흥미롭게 문학적으로 형성화하면서도 예수의 왕권에 대한 신학적인 함의를 다룬다. 이렇듯 요한복음의 법정 장면은 역사성, 문학성, 신학성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기에 『취리히해설』의 성서 해석 모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로서 적절하다고 하겠다.

『취리히해설』의 성서 해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서, 『독일성서공회판해설』과 『굿뉴스』는 요한복음의 법정 장면(18:28-19:16상반)을 각각 어떻게 해석하는지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비교를 통해 독자는 『취리히해설』의 특징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성서공회판해설』은 요한복음의 법정 장면(18:28-19:16상반)의 해설에 있어서 역사적 접근 방식과 신학적 접근 방식을 드러낸다. 『독일성서공회판해설』은 역사적 접근 방식에 입각해서 로마제국 하에서 유대인과 로마 총독의 권력 관계를 설명해 준다. 예를 들면, 『독일성서공회판해설』은 권력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십자가 처형이 로마제국 식민지인에게 의미하는 바를 납득하게 설명해 준다. “식민지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에게 행하는 로마의 처형 방식은 십자가 처형이었다.”<sup>18)</sup> 또한 『독일성서공회판해설』은 로마제국 유대 사회 내에서 예수의 왕권의 신학적 의미를 주어진 지면 내에서 최대한 파헤치고자 한다.<sup>19)</sup> 반면 『굿뉴스』는 『독일성서공회판해설』

16) 요한복음에 나타난 법정 모티브에 관련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라. D. Rensberger, “The Politics of John: The Trial of Jesus in the Fourth Gospel”,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3:3 (1984), 395-411; P. J. Bekken, *The Lawsuit Motif in John's Gospel from New Perspectives: Jesus Christ, Crucified Criminal and Emperor of the World* (Leiden: Brill, 2015).

17) 요한복음의 법정 장면의 문학적 구조에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R. A. Culpepper, *The Gospel and Letters of John* (Nashville: Abingdon, 1998), 224; C. H. Talbert, *Reading John: A Litera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on the Fourth Gospel and the Johannine Epistles* (Macon: Smyth & Helwys, 2005), 246.

18) 『관주·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9), 238.

19) *Ibid.*, 239-240.

에 비해 훨씬 단순한 역사적 배경만을 주로 언급한다. 그 구체적인 예로, 빌라도를 “주후 26-36년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 사마리아, 베레아의 총독으로 임명된” 역사적 인물로 소개한다.<sup>20)</sup> 『굿뉴스』도 『독일성서공회판해설』과 비슷한 맥락에서 예수의 왕권에 대해 관심을 표현하기는 하지만, 그 실제적 논의는 훨씬 간단하고 짧다. 『굿뉴스』는 “예수의 나라는 정치적 왕국이 아니라 영적 왕국”이라고 아주 단순명료하게 소개할 따름이다. 대체적으로 말하자면, 『독일성서공회판해설』과 『굿뉴스』는 요한복음의 법정 장면(18:28-19:16상반)을 주로는 역사적 접근 방식에 입각해서 그 신학적 의미를 간단하게나마 파헤치고자 한다.

그럼 지금부터는 『취리히해설』의 성서 해석 모델의 실례로서 요한복음의 법정 장면(18:28-19:16상반)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취리히해설』은, 『독일성서공회판해설』과 『굿뉴스』와는 전혀 다르게, 법정 장면을 해석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문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 하자 군중과 실랑이를 펼치는 과정을 극적인(dramatic) 효과로 인지한다.<sup>21)</sup> 더 나아가 『취리히해설』은 예수가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과 조롱을 당하는 장면을 하나의 반어법(irony)으로 이해한다. “이 장면[법정 장면]은 <요한복음>의 수난 이야기에 담긴 미묘한 기본 내용을 드러내는 모티브로 시작된다. 채찍질을 당하신 예수님께 군인들이 가시관을 씌우고 값비싼 자색옷을 입힌다. 그러나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이러한 일을 요한은 정반대로 뒤집는다. 바로 그 수난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임금의 자격을 증명해 보이신 것이다.”<sup>22)</sup> 『취리히해설』의 해설에 따르면, 예수는 일견 수모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컬페퍼(R. A. Culpepper)의 언어로 말하자면 “극적 반어(dramatic irony)”에 해당하는 것이다.<sup>23)</sup> 『취리히해설』은 이처럼 요한복음의 문학적성을 토대로 법정 장면을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취리히해설』은 예수의 왕권에 대한 신학적 접근을 『독일성서

20)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0), 180.

21)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231.

22) Ibid.

23) R. A. Culpepper, *Anatomy of the Fourth Gospel: A Study in Literary Desig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3), 165-180. 요한복음에 나오는 반어법에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P. Duke, *Irony in the Fourth Gospel* (Atlanta: John Knox Press, 1985). 이 외에도 요한복음 자체를 하나의 고대 그리스 드라마의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다. J. A. Brant, *Dialogue and Drama: Elements of Greek Tragedy in the Fourth Gospel*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04).

공회판해설』과 『굿뉴스』에 비해 훨씬 더 심도 있게 시도한다. 빌라도와 예수가 처음 대화하는 장면에서 『취리히해설』은 예수의 왕권의 성격을 정치적인 것보다는 종교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빌라도는 구체적인 고발 내용을 언급할 수 없다 할지라도, 곧바로 예수님께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는지 묻는다(18:33). 이 물음과 함께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된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임금의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시지만, 동시에 그 나라는 정치적이고 민족적이 아닌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신다. 예수님이 맡으신 일은, 군사적인 수단으로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다(37-38절).”<sup>24)</sup> 최근 일군의 성서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예수의 왕권을 로마제국의 이데올로기와 대립적 구도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해 왔다.<sup>25)</sup> 특히나 제국 연구(empire studies)와 탈식민주의 성서비평(postcolonial biblical criticism)에 따르면, 예수의 왕권과 로마 황제의 왕권은 서로 대척점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취리히해설』은 예수의 왕권을 이해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오로지 종교적인 것으로 축소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취리히해설』은 다소 정치적 해석을 지양하는 신학적 해석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리히해설』은 법정 장면을 문학적 접근 방법과 신학적 접근 방법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문학적-신학적 접근 방법에 입각하여 해석한다. 특히 요한복음의 주된 문학적 모티브 중 하나인 어린양 모티브를 신학적인 의미로 풀어낸다. 프라이(J. Frey)가 강조하듯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유월절 어린양으로 상징된다.<sup>26)</sup> 이런 관점에서 『취리히해설』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어린양이라는 문학적 모티브를 신학적으로 재해석한다. “심판 선언은 또 다른 미묘한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요한은 판결을 내린 정확한 장소뿐만 아니라, 시간을 밝힘으로써 긴장감을 높인다. 예수님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유월절 어린양이 도살되는 바로 그 시점이다. <요한복

24)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231.

25) 참조. R. J. Karris, *Jesus and the Marginalized in John's Gospel*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0); R. J. Cassidy, *John's Gospel in New Perspective: Christology and the Realities of Roman power* (Maryknoll: Orbis Books, 1992); D. Rensberger, *Johannine Faith and Liberating Communit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8); M. W. Dube, ed., *John and Postcolonialism: Travel, Space, and Power* (London: Sheffield Academic Press, 2002); L. B. Richey, *Roman Imperial Ideology and the Gospel of John* (Washingt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07); W. Carter, *John and Empire: Initial Explorations* (London: T & T Clark, 2008); T. Thatcher, *Greater than Caesar: Christology and Empire in the Fourth Gospel*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9).

26) J. Frey, *The Glory of the Crucified One: Christology and Theology in the Gospel of John*, W. Coppins and C. Heilig, trans.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18), 86.



음>을 읽는 사람들은 곧바로 세례 요한이 한 말, 곧 복음서의 앞부분에 놓여 복음서 전체의 전개 방향을 엿보게 해주었던 그 말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1:29)이라고 한 말이다.”<sup>27)</sup> 이렇듯 『취리히해설』은 요한복음의 문학적 특징에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문학적-신학적 방법론을 취하는 것이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독일성서공회판해설』과 『굿뉴스』의 역사적 접근 방식과 신학적 접근 방식에 비해, 『취리히해설』은 요한복음의 법정 장면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학적 접근 방식, 신학적 접근 방식, 그리고 이 둘을 하나로 엮는 문학적-신학적 접근 방식을 다채로우면서도 심도 있게 보여주었다. 『취리히해설』은 의아하게도 법정 장면에서는 일견 역사적 접근 방식을 부각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취리히해설』은 법정 장면(요 18:28-19:16상반)을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요한복음 18:12-27과 19:16하반-30의 수난 이야기에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를 공히 언급함으로써 기본적으로는 역사적 접근 방식을 견지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리하자면, 요한복음의 법정 장면을 중심으로 그 이웃한 수난 이야기를 참조해서 보았을 때, 『취리히해설』은 문학적 접근 방식을 중심으로 다른 접근 방식들, 예를 들면, 신학적 접근 방식과 역사적 접근 방식을 유기적으로 사용하여 성서의 의미를 다채롭게 파헤친다. 단 아쉬운 점은, 『취리히해설』은 성서의 정치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함구한다는 사실이다.<sup>28)</sup> 스티브(M. W. G. Stibbe)가 잘 지적하듯이, 요한복음은 다층적인 이야기로서 다층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한 텍스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sup>29)</sup>

## 5. 나오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최근 대한성서공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취리히해설』의 출간 의의를 성서 해석 모델을 초점에 두고 되짚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취리히해설』의 해설 구성 체계를 분석하였다. 『취리히해설』은 스위스

27)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231-232.

28) 참조. W. Carter, “Ideological Readings of the Fourth Gospel”, J. M. Lieu and M. C. de Boer, eds., *The Oxford Handbook of Johannine Stud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203-219.

29) M. W. G. Stibbe, *John as Storyteller: Narrative Criticism and the Fourth Gospe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1.

개혁교회가 2007년 출간한 『취리히성경』 최신개정판의 부록 중 하나인, <뜻풀이>(초판 2010, 제2-3권; 제2판 2011)의 편역본이라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취리히해설』의 성서 해석 모델을 과해치기 위해 먼저 <뜻풀이>와 『취리히해설』의 해설 구성 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 『취리히해설』은 <뜻풀이>의 편역본으로서 개론적인 기본 사항은 도표 형식과 서술 형식으로 표현하며 본문 뜻풀이는 오로지 성서 본문과 성서 해설로 단순화시켜 독자에게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한다. 『취리히해설』은 <뜻풀이>에 표기된 참고 자료의 내용과 주석가의 이름을 삭제함으로써, 일반 독자들에게 지나치게 전문적인 신학 관련 내용과 스위스 개혁교회의 해석 전통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자제했다. 이렇듯 구성 체계에 있어서 『취리히해설』은 신학적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특정한 교단의 신학 사상을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보다 일반적인 독자층을 고려한다.

다음으로 『취리히해설』의 성서 해석 모델을 본격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에 대한성서공회에서 출간해 온 다른 해설 성서들인, 『독일성서공회판해설』 및 『굿뉴스』를 비교해 볼 때, 『취리히해설』은 역사, 문학, 신학 및 문화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성서 해석을 시도한다. 『취리히해설』의 성서 해설 모델은, 요한복음을 그 대표적인 예로 살펴볼 경우에, 문학적 비평 방식을 중심에 두고 다른 비평방식을 균형감 있게 아우름으로써 성서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전문 지식을 갖춘 고급 독자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킨다. 따라서 그 구성 체계와 해석 모델에 있어서 『취리히해설』은 일반 독자층을 최대한 배려하면서도 신학적 전문성을 고수하는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취리히해설』의 성서 해석 모델이 어떻게 본문에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난 이야기 중, 법정 장면(요 18:28-19:16상반)을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보다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서 『독일성서공회판해설』과 『굿뉴스』의 동일한 본문을 어떻게 다루는지 간단히 살펴보았다. 『독일성서공회판해설』과 『굿뉴스』의 주된 역사적 접근 방식과는 사뭇 다르게, 『취리히해설』은 법정 장면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학적 접근 방식과 신학적 접근 방식, 그리고 이 둘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문학적·신학적 접근 방식을 주로 채택하였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법정 장면 이외의 수난 이야기에서는 역사적 접근 방식도 물론 사용된다는 사실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취리히해설』의 성경 해석에 있어서 다소 특이한 사항은, 『취리히해설』은 초기 기독교와 로마 제국의 관계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취리히해설』은 성서의

정치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취리히해설』의 뜻깊은 출간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남는다. 먼저 『취리히해설』은 그 태생에 있어서 편역서라는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기에 실제 해석 과정에서 서구 신학, 특히 스위스 개혁교회의 신학적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편역하는 과정에서 특정 교단의 신학적 색채를 최대한 배제하였더라도 서구 신학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대하다. 바로 이 점이 한국 교회와 신학을 담보한 새로운 해설 성경이 앞으로 기대되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취리히해설』은 역사적, 문학적, 신학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통합적인 성서 해설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성서가 집필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인 정치적 맥락을 제대로 독자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신약 성서의 경우에 초기 기독교와 로마제국의 관계는 신약 성서의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하다. 또한 『취리히해설』은 그 원본인 <뜻풀이>에 비해서도 편역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맥락을 도외시하는 한계를 보였다. 성서 자체와 성서를 해석하는 현대인의 삶의 정황은 모두 매우 복잡다단하다. 그러하기에 현재 『취리히해설』보다는 더 종합적인 성서 해설이 앞으로는 요청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독자는, 일반 독자이든 전문 독자이든 상관없이, 성서의 난해한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현대인의 복잡다기한 삶의 정황에 그대로 적용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런 아쉬운 점으로 인해, 앞으로는 한국 사회, 교회, 신학에 기초한 새로운 성서 해설을 기대하게 된다. 민영진과 김영봉이 2000년 초에 이미 제기하였듯이, 독자 중심의 쉬운 성서 해석과 목회자와 신학자의 공동 작업에 의한 한국적인 해설 성서가 머지않은 미래에는 필요할 것이다.<sup>30)</sup>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기존의 해설 성서보다는 더욱 종합적인 성서 해석 모델을 확립하여 일반 독자층과 전문 독자층을 모두 겨냥한 창의적이면서도 한국적인 해설 성서가 곧 탄생하기를 고대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의 관심과 헌신이 그 어느 때보다 요청된다.

30) 민영진, “우리말 해설 성서의 현재와 미래적 과제”, 『성경원문연구』 9 (2001), 7-40 ; 김영봉, “우리의 상황에서 나온 해설 성서가 필요하다: 스테디 바이블을 사용하고 있는 독자의 입장에서”, 69-78.

<주제어>(Keywords)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관주·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개역개정판』, 성서 해석, 한국적 정황.

*The NKRV Study Bible; Stuttgarter Erklärungsibibel, The NKRV Study Bible; Stuttgarter Erklärungsibibel, Good News Study Bible, biblical interpretation, Korean context.*

(투고 일자: 2022년 1월 30일, 심사 일자: 2022년 2월 18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4월 19일)

<참고문헌>(References)

-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0.
- 『관주·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9.
-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1.
- 김영봉, “우리의 상황에서 나온 해설 성서가 필요하다: 스테디 바이블을 사용하고 있는 독자의 입장에서”, 『성경원문연구』 9 (2001), 69-78.
- 김창락, “『관주·해설 성경전서』와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성경원문연구』 9 (2001), 56-64.
- 민영진, “우리말 해설 성서의 현재와 미래적 과제.” 『성경원문연구』 9 (2001), 7-40.
- 박동현, 이상원, “서평: Erklärt. Der Kommentar zur Zürcher Bibel”, 『성경원문연구』 40 (2017), 265-291.
- 차준희,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과 『관주·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비교 – 예레미야서 해설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9 (2021), 214-240.
- 최영숙, “『취리히성경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특징점과 평가 – 서신서 중심”, 『성경원문연구』 49 (2021), 241-266.
- Bekken, P. J., *The Lawsuit Motif in John's Gospel from New Perspectives: Jesus Christ, Crucified Criminal and Emperor of the World*, Leiden: Brill, 2015.
- Brant, J. A., *Dialogue and Drama: Elements of Greek Tragedy in the Fourth Gospel*,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04.
- Carter, W., “Ideological Readings of the Fourth Gospel”, J. M. Lieu and M. C. de Boer, eds., *The Oxford Handbook of Johannine Studi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203-219.
- Carter, W., *John and Empire: Initial Explorations*, London: T & T Clark, 2008.
- Cassidy, R. J., *John's Gospel in New Perspective: Christology and the Realities of Roman Power*, Maryknoll: Orbis Books, 1992.
- Culpepper, R. A., *Anatomy of the Fourth Gospel: A Study in Literary Desig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3.
- Culpepper, R. A., *The Gospel and Letters of John*, Nashville: Abingdon, 1998.
- Dube, M. W., ed., *John and Postcolonialism: Travel, Space, and Power*, London: Sheffield Academic Press, 2002.
- Duke, P., *Irony in the Fourth Gospel*, Atlanta: John Knox Press, 1985.
- Frey, J., *The Glory of the Crucified One: Christology and Theology in the Gospel of John*, W. Coppins and C. Heilig, trans., Waco: Baylor University Press, 2018.
- Karris, R. J., *Jesus and the Marginalized in John's Gospel*,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0.

Rensberger, D., *Johannine Faith and Liberating Communit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88.

Rensberger, D., “The Politics of John: The Trial of Jesus in the Fourth Gospel”,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3:3 (1984), 395-411.

Richey, L. B., *Roman Imperial Ideology and the Gospel of John*, Washingt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07.

Stibbe, M. W. G., *John as Storyteller: Narrative Criticism and the Fourth Gospe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Talbert, C. H., *Reading John: A Litera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on the Fourth Gospel and the Johannine Epistles*, Macon: Smyth & Helwys, 2005.

Thatcher, T., *Greater than Caesar: Christology and Empire in the Fourth Gospel*,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9.

<Abstract>

**Models of Biblical Interpretation in  
*NKRV, Erklärt-Der Kommentar zur Zürcher Bibel*:  
Revisiting the Gospel of John as a Case Study**

Sung Uk Lim  
(Yonsei University)

This essay intends to delve into the interpretive framework of the Korean version of *NKRV, Erklärt-Der Kommentar zur Zürcher Bibel* with a main focus on the Gospel of John as a case study. In the past recent decades, Korean Bible Society has made all efforts to provide the best study Bible for South Korean Protestant lay people on the basis of the New Korean Revised Version. As part of these efforts, Korean Bible Society has consecutively offered a Korean edited translation of *The NKRV Study Bible; Stuttgarter Erklärungsibibel* (1998) (hereinafter Stuttgart), *the Good News Study Bible* (2000), and the *NKRV, Erklärt-Der Kommentar zur Zürcher Bibel* (2021) (hereinafter Zürich). The current study probes into the ways in which the Korean version of Zürich finds meanings out of the sacred text in the following three ways. First of all, it will analyze the structure of Zürich in such a way as to compare the Korean version with the German version. Second, it will give an overview of the hermeneutical model of Zürich in juxtaposition with Stuttgart and *the Good News Study Bible*. Finally, it will take a closer look at the trial scene in John's Gospel (18:28-19:16a) as interpreted by the Korean version of Zürich. In a nutshell, it is the contention of the present essay that the Korean version of Zürich is deeply rooted in an interpretive framework which brings the literary approach to the fore, but in collaboration with the other historical and theological approaches.